

□ 특집/일석 이희승 선생의 학문과 인간

일석 문법의 두 과제

박 양 규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어문규범연구부장)

1. 서 언

국어학사에서 1945년의 광복이 가지는 의미를 어문 규범 정리를 위한 실천적 연구 단계로부터 국어 전반에 대한 이론적 연구 단계로의 전환에 둔다면, 일석 이희승 선생은 바로 그러한 전환의 앞뒤를 잇는 다리의 역할을 담당한 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일석은 18세 때의 “고향집 탈출” 이후 무려 70여 성상을 국어 연구의 뜻으로 일관하였지만, 그 학문의 역정은 “험난한 길”의 연속이었다(이희승 1975). 우리의 선학들 가운데 처음으로 정규 대학의 국어학 과정을 이수하였으나, 그가 경성제국대학 조선어문학과외 학부 과정을 마친 것은 35세가 되어서의 일이었다. 그리고 이후로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 및 보급의 일, ‘큰사전’ 편찬의 일, 조선어학회 사건 등으로 “순수 학문에 정진”할 여유를 가질 수 없었다. 광복 후의 사정도 그리 나이지 못하였다. 순탄하지 못했던 우리 역사의 짐들이 그에게 차분한 연구·저술의 시간을 허락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6.25 사변의 타격은 가위 치명적인 것이었다. 미발표 원고를 포함한 모든 연구 성과와 장서를 한꺼번에 태워 없애 버린 것이다.

- (1) 일조 일석에 이루어질 수 없는 수천 장의 카드와 함께, 이것 저것 그적거리던 원고 문치는 그 그림자나마 꿈에서라도 다시 찾아 볼 길이 바야 없다. 기억이 한결 무디어진 지금에 와서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반생 —아니 삼분지 이 이상— 일

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왕성하던 시절은 완전히 공백으로 되어 버리고, 나는 그만 고고의 소리도 지를 수 없는 초생아가 되고 말았다. 참으로 여년이 없는 초생아다. (이희승 1955: 서문)

일석이 남긴 저술들 가운데 정작 문법 관련이 논저가 많지 못함은 그러한 사정들로 말미암은 것이다. '조선어학논고'(1947)는 이미 광복 전에 발표된 십수 편의 논문을 수록한 것이고, '국어학개설'(1955)은 전란의 와중에서 단 하나 요형히 살아 남은 강의안을 정리한 미완결의 저술이다.¹⁾ 전란 직전에 고등 학교 교재로 쓰여진 '초급 국어 문법'(1949)이 그가 구상한 문법의 개요를 드러낸 유일한 책이다.²⁾ 전란 후로도 "존재사 '있다'에 대하여"(1956)를 비롯한 몇 편의 논문이 더 있으나, 그의 이후 활동은 주로 후진 양성에 바쳐진다.

그러나 일석의 경우, 비록 그가 남긴 저술이 많지 못하다 하더라도, 이로써 그의 학문적 업적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는 미완의 저서인 '국어학개설' 한 권 만으로도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다리의 역할을 능히 수행한 분이였다.³⁾ 특히 이 책의 서설편은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우리 선인들의 국어에 대한 자각의 역사와 갑오경장 이후 우리 선학들의 연구 성과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국어학의 정통성을 확인시켜 주었고, 거기서 그가 내세운 '국어학 건설'의 기치는 후학으로 하여금 학교 문법의 좁은 테두리를 넘어 앞으로 전개될 국어학의 전체 모습을 그릴 수 있도록 시야를 넓혀 주었다.

이 글에 처음 주어진 임무는 일석의 국어 문법 연구 전반을 개관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필자는 단지 위의 논저들에 담겨진 그의 문법적 구상 두 가지를 오늘의 관점에서 되새겨 보는 것으로 이 임무를 대신하고자 한다.

-
- 1) 서설, 음운론, 어휘론, 문법론의 4편으로 구성된 이 책의 문법론은 품사 분류에서 끝나 있다. 그리고 결어에서는 계통론, 형태론, 문자론, 국어지리학 등을 미처 다루지 못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 2) 이 책은 '새고등문법'(1957)의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원래는 중학교용으로 쓰여졌으나, 이 책을 고등학교용으로 하여 이름을 바꾸고 따로 평이한 '중등 문법'을 간행하였다. 김민수(1977) 참조.
 - 3) 고영근(1885: 20)은 1911년부터 1945년까지를 "실천 과학으로서의 국어학의 발전", 1946년부터 1955년까지를 "이론 과학으로서의 국어학의 기반 구축"의 시기로 나누었는데, 후자의 시기를 1955년까지로 잡은 것은 일석의 '국어학개설'이 지니는 역사적 의의를 고려했기 때문이라 하였다. 이 책의 내용을 포함한 일석의 국어 연구 전반에 대한 소개와 평가가 이병근(1992)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2. 어 절

일석 문법의 첫 과제는 문법론을 국어학의 여러 하위 부분들 가운데 하나로 인식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그는 문법 기술의 범위를 단어에서 문장까지로 한정하였다. 그리하여 학교 문법서인 '초급 국어 문법'에서조차 음운의 설명을 제외하였다. 그리고 '국어학개설'에서는 음운론은 물론 어휘론마저도 문법의 영역 밖에 두었다. 이에 따라 종래 품사론에서 다루어져 왔던 단어의 형성이 이 책에서는 문법론이 아닌 어휘론에 속하게 된다. 일석의 문법은 품사론과 문장론만으로 구성된다." 음운이 제외된 문법의 선례로 이미 정렬모의 '신편 고등 국어 문법' (1946)이 있었고, 품사론과 문장론의 구분은 학교 문법의 오랜 전통이라 하겠으나, 일석의 문법에서 이 두 부분의 구분은 좀더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는 문장(文, 글월)과 단어의 사이에 어절이라는 중간 단위를 설정하고, 이를 경계로 하여 품사론과 문장론을 구분하였다.

- (2) 가. 단어가 서로 서로 관계를 맺어서 글월을 이루는 법칙이 곧 문법이라는 것이다. (이회승 1949 : 17)
- 나. 단어가 모여서 어절이 되고, 어절이 모여서 글월이 된다. (이회승 1949 : 16)
- (3) 가. 한 덩어리의 정돈된 생각을 나타내는 말을 각각 한 개의 글월(文)이라 이른다. (이회승 1949 : 14)
- 나. 한 개의 글월(文)은 몇 도막의 생각이 모이어 이루어지나니,…… 이 한 도막씩을 각각 어절이라 이른다. (이회승 1949 : 14)
- 다. 한 개의 독립한 뜻을 나타내는 말을 단어 혹은 낱말이라 이른다. (이회승 1949 : 15)
- (4) 가. 체언에 조사가 붙은 것이 어절이다. (이회승 1949 : 158)
- 나. 동사 형용사 존재사와 같이 활용하는 말은 어간과 어미가 모여서 된 한 개의 단어로 한 어절을 이른다. (이회승 1949 : 158)
- 다. 활용되지 않는 말은 단어 그대로 각각 한 어절을 이른다. (이회승 1949 : 159)
- (5) 가. 고양이는 꼬리가 있다.
- 나. 우람한 푸른 산이 꼭 높이 솟았다.

4) 국어 전반에 걸친 어형 변화의 연구로 형태론이 필요함을 결어에서 말하고는 있으나, 이 형태론과 품사론의 관계나 경계는 밝히고 있지 않다.

위 (4가-다)에서 어절이 가지는 실천적인 의의는 그것이 띄어쓰기의 단위와 일치한다는 데에 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 이후 우리의 띄어쓰기 규정은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쓰되, 토는 그 옷 말에 붙여 쓴다는 것이었다. 이 토(吐)의 문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일석은 외솔(최현배 1937)의 용언 활용론을 수용하였다. 즉 (5가. 나)의 '는, 가'와 같은 체언의 토는 조사라 하여 단어로 다루고, '-은, -다'와 같은 용언의 토는 활용 어미로 다룬다는 것인데, 일석은 이를 절충적 처리라 불렀다(이희승 1955: 405). 따라서 일석의 문법에서 단어와 어절의 구분이 필요해진 것은 그가 조사를 단어로 다루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단위가 차이를 가져 오는 것은 대개 체언에 조사가 연결된 경우들이고,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면 한 단어가 그대로 한 어절이 된다.

현행 학교 문법의 교재인 '고등 학교 문법'(성균관대, 1991) 역시 문장 분석의 단위로 어절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어절과 함께 구와 절을 중간 단위로 두고 있으므로, 그 단위로서의 의의가 일석의 어절과 같은 것은 아니다. 형태소 분석을 전제로 하는 구나 절은 어절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가령 이 책에서는 "문 밖에 아주 세 차가 한 대 서 있다"와 "철수가 일등을 했음이 드러났다"의 밑줄친 부분을 명사구와 명사절로 다루고 있는데(p.66), 이들의 끝 경계는 각각 어절 '차가, 했음'의 내부를 가르치려고 있다. 이 책의 어절이 문법 단위를 소개하는 자리(pp.10-14)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위로 다루어지고서도, 정작 문장 구조의 설명에는 단 한 번도 이용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일석의 문법에는 어절과 문장 사이에 구나 절과 같은 중간 단위가 없으므로, 모든 어절은 문장의 직접 성분이 된다. 그는 이 문장의 성분을 주어, 목적어, 수식어, 한정어(부사어), 독립어의 다섯 가지로 나누었다. 이 가운데 주어와 서술어는 필수 성분이다. 목적어와 보충어(보어)도 있으나, 이들은 한정어의 하위 부류로 다루어진다.

- (6) 가. 주어와 서술어는 글월에 없지 못할 중요한 성분이므로 이것을 본체부라 이르고, 수식어나 한정어는 주어나 서술어에 딸리어서 쓰일 따름이므로 이것을 부속부라 이른다. (이희승 1949: 185)
- 나. 목적어와 보충어는 예사 한정어와 달라서, 반드시 쓰이어야 그 용언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특별한 성분이다. (이희승 1949: 173)
- 다. 주어와 주어에 딸린 부속부를 합하여 주어부라 이르고, 서술어와 서술어에 딸린 부속부를 서술부라 이르며, 또 독립어와 그것에 딸린 부속부를 합하여 독립부라 부른다. (이희승 1949: 186)

강복수(1972 : 253-54)에서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일석의 어절은 일본인 하시모토(橋本)의 문법에서 보는 문절(文節)을 수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를 문장론에 적용함에 있어서 양자 사이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첫째, 하시모토의 문장론에서는 주어가 문주(文主)의 개념이 아닌 일종의 부사어(連用修飾語)와 같은 것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나(小池 1990 : 43-44), 일석의 주어는 서술어와 맞서는 문주의 개념이다. 둘째, 후기의 하시모토 문법은 문절과 문장 사이에 연문절(連文節)이라는 중간 단위를 두게 되나(高山 1990 : 39-40, 松村 1982), 이를 참조한 것으로 보이는 일석은 끝내 그러한 중간단위를 설정하지 않았다. 셋째, 하시모토는 언어 단위의 음성적 측면을 매우 중시하였으나, 일석의 관심은 주로 조사나 어미 등의 허사가 가지는 문법적 기능에 있었다. 그리하여 하시모토는 문절의 정의는 물론 문절들 사이의 관계 기술에서 요소들의 선조적 순서에 철저히 의존하였지만(高山 1990 : 40), 일석은 어절들의 선조적 순서에는 별로 구애받지 않았다.

(7) 가. 고양이는 꼬리가 있다.

나. 고양이는 꼬리가 있다.

(8) 가. 우람한 푸른 산이 펑 높이 솟았다.

나.

우람하-ㄴ	푸르-ㄴ		펑		높-이
산			이		
			솟았		
			다		

위 (7가, 나)는 앞 (5가)를 예문으로 하여 초기 하시모토 문장론의 단층적 구조도와 연문절을 두게 된 후기의 계층적 구조도를 예시한 것이고(高山 1990 : 39-40 참조), (8가, 나)는 앞 (5나)를 예문으로 하여 일석이 보인 두 종류의 구조도를 예시해 본 것이다(이희승 : 183-4). 일석이 (8가)에 만족하지 않고 이른바 '구문 도해'를 이용한 (8나)를

함께 제시한 것을 보면, 그는 하시모토의 문장론을 수용하면서도 거기에 구애받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 구문 도해는 전통 영문법에서 비롯되어 주시경의 '국어문법'(1910) 이후 우리 문법서에서도 널리 이용되어 온 방법이다.⁵⁾ (8가)에서 그가 주어부와 서술부를 선으로 이어 놓지 않은 것은 양자의 관계가 일반적인 수식이나 한정 관계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8나)의 굵은 수직선이 이를 말해 준다. 그리고 (8나)에서 '높이'는 서술어인 '솟았다'를 직접 한정하지만, '푹'은 '높이'를 수식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솟았다'에 관련되는데, (8가)의 계층 구조도에서는 그러한 차등이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8나)의 도해를 (7나)와 같은 계층 구조도와 동일시해서는 안된다. (8나)의 도해에서는 모든 단어(또는 어절)들이 그 상호 관계를 나타내는 하나(또는 둘이상)의 선으로 직접 이어질 뿐, 여기에 구나 절 또는 연문절과 같은 추상적 중간 단위가 개입하는 것은 아니다. (7나, 8가)에서 보는 것과 같은 구절 구조의 개념이 일석에게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를 단위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그리하여 그가 구상한 문장 구조는 여전히 어절을 직접 성분으로 하는 단일 계층의 구조로 남게 된다.

여기서 잠시 일석이 조사를 단어로 인정하지 않았을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승녕(1953)의 격어미설과 같은 것이 되겠는데, 그런 경우에도 일석은 굳이 어절과 같은 단위를 두었을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는 '체언+조사'가 하나의 단어(굴절형)이므로, 실천적으로는 단어와 구별되는 어절이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이 실천적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앞 (3나)가 말하는 바의 어절이 문장을 분석해서 얻어지는 것임에 비하여, (3다)의 단어는 문장을 떠나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전자를 문장 속의 단어라 한다면, 후자는 사전 속의 단어에 비유된다.

- (9) 언어의 일반적 성질에 의하여 음미하여 보면, 각 단어는 독립적이 아니요, 또 정지적이 아니다. 실제로 언어 활동에 있어서는 글월(文) 속에서 만드시 다른 단어와 상관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고, 따라서 그 의식에 문법적 기능이 부수되어 동적으로 나타난다. "사람·꽃"이라는 말의 정지 상태인 추상 개념만은 사전에 기록되어 있는. 의미 해석의 대상이 될 경우에 한할 뿐이다. (이회승 1955: 200-201)

5) 단, 이들은 대부분 변형된 도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조사나 어미가 구나 절의 경계에 의하여 어간으로부터 분리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문장 속의 단어(어절)는 “서로 서로 관계를 맺어서” 문장 성분의 기능을 가지지만 사전 속의 단어에는 아직 그러한 기능이 없다. 그 대신 사전 속의 단어에는 발음 정보, 의미 정보, 단어 형성 정보 등이 품사 및 어형(word-forms) 변화의 정보와 함께 주어진다. 어휘론은 이 모든 정보들을 다루지만,⁶⁾ 문법론은 그 가운데 품사 정보와 어형 변화 정보(inflexional paradigm)만을 이용한다.

앞의 (4가-다)에서 일석이 어절의 개념을 ‘체언+조사’와 용언의 ‘어간+어미’에 일 변화하였을 때, 그 때의 어절이 뜻하는 바는 이제 자명해진 셈이다. 어절이라는 단위로 써 그가 가리키고자 한 것은 바로 어형이었던 것이다. 이는 관형사나 부사와 같은 활용하지 않는 단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단일 어형을 가지는 단어들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석이 어절이라는 단위를 통하여 구상하였던 것은 결국 어형을 기본 단위로 하는 이른바 WP(Word and Paradigm) 모형의 문법을 구축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오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모형의 문법에서 구절 구조가 반드시 배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기본 발상에서는 가령 오늘의 이른바 의존 문법(Dependency Theory)의 그것과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는 어절 하나하나가 다른 어절들과의 의존 관계에 상응하는 기능을 내포한다. 다만 이 기능들은 구나 절을 단위로 하는 분석에서도 훼손됨이 없이 유지되어야 하는데(이정민·배영남 1987: 260-1, 980-1, Matthews 1974: 16-36 참조), 일석의 어절은 바로 이를 위한 조처였던 것이다.

3. 존재사

우리 선학들의 문법 연구가 대부분 그러하였듯이, 일석의 문법에서도 그 중심 과제는 역시 품사의 분류에 있었다. ‘국어학개설’의 문법론은 최광옥의 ‘대한문전’(1908)으로부터 홍기문의 ‘조선문법연구’(1947)에 이르기까지 모두 32인의 48종 문법서에서 제안된 품사들의 철저한 분석과 비판에 바쳐져 있다. 그리고 일석 자신의 품사는 ‘초급 국어 문법’에 제시된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존재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접속사, 조사’의 10가지였다.

일석의 10품사에서 존재사와 접속사를 빼고 여기에 수사를 더하면 1963년 학교 문법통

6) ‘국어학개설’의 어휘론은 어형론(단어의 구성)과 어의론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형론에서는 국어 단어의 내적 구성을 ‘단음절어와 다음절어’, ‘단일어와 합성어’의 두 기준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일안의 9품사와 같아진다. 이 가운데 일석으로서 특히 아쉬웠을 것은 존재사가 아니었을까 한다. 접속사는 현행 문법에서도 부사의 한 하위 부류인 접속 부사로 남아 있다. 수사 역시, 그로서는 수 관형사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독립 품사로서의 지위 인정을 꺼렸던 것이나(이희승 1955: 380-1), 일석 문법과 통일 문법 사이의 환산은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있다, 없다, 계시다'의 존재사만은 통일안에서 그러한 환산이 약속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후의 문법서 가운데는 이들을 동사('있다, 계시다')와 형용사('없다')로 분산 편입한 예도 있고, 모두 형용사에 소속시킨 것도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있다'만은 동사와 형용사의 두 경우로 나눈 예도 있었다. 현행 '고등 학교 문법'의 교사용 지도서가 "'있다, 없다'는 어느 품사에 속한다고 하기보다 그 활용 방식을 정확히 일러 주는 것이 중요하다"(1991: 44-5)고 하여 결론을 유보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이들의 품사 결정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

일석이 이 세 단어으로써 존재사 설정을 제안한 데에는 두 가지 논거가 있었다(이희승 1949: 115-6). 첫째, 이들은 단지 어떠한 물건이나 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존재 여부만을 나타낼 뿐, 동사처럼 무슨 동작이나 작용을 표시하거나 형용사처럼 무엇이 어떠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둘째, 이들 세 단어의 활용 방식은 동사와 형용사의 어느 것보다도 일치하지 않는다. '초급 국어 문법'에서 일석이 말한 존재사 '있다'의 활용상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이희승 1949: 112-5).

(10) 가. 종결 어미는 대체로 형용사와 같으나, 동사와 같은 것도 있다.

'있다' ('먹는다, 맑다'), '있구나' ('먹는구나, 맑구나')

'있느냐' ('먹느냐, 맑으냐').

나. 연결 어미는 동사와 일치한다.

'있는지' ('먹는지, 맑은지'), '있는데' ('먹는데, 맑은데')

다. 관형사형 어미는 대체로 동사와 같으나, 과거 시제가 없는 점은 형용사와 같다.

'있는' ('먹는, 맑을'), '있던' ('먹던, 있던')

'있은' ('먹은', '먹은').

라. 보조 용언 '-고 싶다'의 쓰임은 동사와 같다.

'있고 싶다' ('먹고 싶다, 맑고 싶다')

'국어학개설'에서 일석이 내세운 품사 분류의 기준은 '의의적 범주에 의할 일'과 '기능적 범주에 의할 일'의 두 가지였다(pp. 369-70). 여기서 '의의적 범주'란 가령 '무게,

무겁다, 묵직하다'에서 보는 것과 같은 '단순한 어의의 공통성'이 아니라, '의미의 형식상 단위가 지향하는 방향의 공통점'이었다(p.370). 그리고 '기능적 범주'의 '기능'은 '문장의 성분으로서 다른 성분과 관련을 맺는 기능'을 뜻하는 것이었다.

이 두 기준을 위에서 말한 일석의 두 논거와 비교해 보면, 그의 존재사론에는 좀더 구명되어야 할 불투명한 논리가 내포된 면도 없지 않다. 그는 세 단어가 나타내는 사물의 존재 여부는 형용사의 '성질·상태'나 동사의 '동작·작용'과는 개념의 범주가 다르다고 하였다(이회승 1955 : 338). 그러나 그의 존재사론에서 '동작·작용'이나 '성질·상태'와 구별될 만한 '존재 여부의 지향하는 방향'을 분명히 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가령 '태어나다, 죽다'가 말하는 생성·소멸이나 '많다, 적다'가 말하는 수량은 왜 존재의 범주에 들 수 없는지, 더욱이 '존재하다'는 왜 존재사에 속하지 못하는지를 밝히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그는 또한 '있다, 없다'의 문법적 기능이 전연 동일하다고 하였으나(이회승 1955 : 389), 동사·형용사의 그것과 구별되면서, '있다'와 '없다'만이 공유하는 문장 성분으로서의 기능을 찾기도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형태적 범주'의 문제라고 보아야 할 위의 활용상의 특징들을 이 기능적 범주로 환산한다는 것도 좀처럼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있다'와 '없다' 사이에 활용상의 차이도 없는 바는 아니다('있고 싶다~없고 싶다'나 '있어라~없어라'). '있다'에는 '존재'를 뜻하는 것과 '소유'를 뜻하는 것의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들과 '없다'의 관계도 단순한 편은 못된다. 가령 '소유'의 '있다'는 '없다'를 반의적으로 가지지만('책이 있다'~'책이 없다'), '존재'의 '있다'는 그렇지 못하다('있어라'~'없어라/있지 말아라'). 두 경우의 '있다'와 '없다, 계시다'의 관계에 대하여는 이미 일석 자신의 치밀한 관찰이 이루어진 바 있으나(이회승 : 129-130), 이 역시 그의 존재사론을 지지해 주는 것이라 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적어도 이질적인 두 '있다'의 존재를 전제하는 것이고, 그만큼 '있다, 없다, 계시다' 사이의 차이를 말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 (11) 가. 아버지께서는 사랑에 계시다(*있으시다).
나. 아버지는 수업이 있으시다(계시다).
- (12) 가. 아버지께서 출입하시고 안 계시다(*없으시다)
나. 어머니는 돈이 없으시다(*안 계시다)

일찌기 외솔(최현배 1937 : 162-3)이 밝히 지적한 바와 같이, 말이란 처음부터 일정한 분류에 의하여 창작된 것이 아니다. 이미 제 스스로 있는 말을 제이차적으로 편의에 따라서 분류한 것이 품사인즉, 여기에 얼마간의 어긋남은 있게 마련이다. 특히 존재사와

같이 극소수의 단어를 구성원으로 하는 작은 품사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외술의 지정사('이다, 아니다')나, 영문법의 관사('a, the')와 같은 것도 모두 그러한 예라 할 수 있다. 문제의 단어들이 보이는 극단적 불규칙성이라든가, 그러면서도 그 문법적 기능이 광범·다양하다든가 하는 것들은 분류자로 하여금 이들을 여타의 어휘들과 구분하여 독립 품사로 다루게 하는 유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일석의 문법론이 대부분 현대 국어를 대상으로 한 공식적 연구였음에 비추어, 그의 어휘론에는 역사적 사실을 향한 것이 많았다. 그는 국어의 모든 허사는 실사로부터의 발달이었으리라는 전제를 신념으로 가지고 있었는데(이희승 1931=1947: 233), 여기서도 그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진 주제는 존재사 '있다'의 문법화였다. 이 '있다'의 문법화에 대한 일석의 관심은 그가 발표한 최초의 학술 논문인 "조선어 '때의 조동사'에 대한 관건"(1931=1947)에서 비롯되었고, 그 주제는 시제의 선어말 어미 '았/었'과 '겠'의 어원을 '있다'에서 찾는 것이었다. 이것이 "'ㅁ' 받침의 가부루 논함"(1932=1947)을 거쳐 그의 마지막 논문인 "존재사 '있다'에 대하여"(1956)에 오면, 주격 조사 '이'와 사동·피동의 접미사 '-이-', 존경의 선어말 어미 '-시-'의 어원 추정에 이르기까지 광범하게 전개 된다. 아마도 그가 일생을 두고 추구한 과제였던 듯싶다(안병희 1989).

일석의 논의는 '있다'의 고형 확인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시다)있다)있다'로의 발달이 그것인데." 여기서 '있다'의 문법화는 '이시다'의 어간 '이'와 '시'의 분열에 의한다. 즉 '이'는 주격 조사와 사동·피동의 접사로 분화 발달하고, '시'는 존경과 시제의 선어말 어미로 분화 발달하였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주격 '이'의 어원론은 이를 지시 대명사(또는 3인칭 대명사)의 '이'에서 찾은 램스테트(Ramstedt 1939: 37-8)의 주장에 대한 대안으로 제기된 것인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3) 가. 사랑이 귀 어땀더냐(시조)
나. 제 헤아리지 아니코(능엄경언해 4: 66)
- (14) 가. 귀<그+이 (지시 대명사 + 지시 대명사)
나. 제<저+이 (지시 대명사 + 지시 대명사)
- (15) 가. 산이 높다.
나. 산 이것 높다.
다. 산 있어서 높다.

7) 중세어에서 '이시다'와 '있다'가 쌍형으로 존재하는 것을 현대어에서 '가지다, 미치다' 등이 '갓다, 땃다'와 공존하는 것과 동례의 사실로 보았다(p. 23-4).

(16) 가. 열성조(列聖朝)겨오사 성명(聲明)호오신 드스리심 회흠(熙洽)호오신 교화
로… (고종윤음 1881)

나. '겨시다' (존경 존재사) → '꺼서' (존경 주격 조사)

다. '이시다' (일반 존재사) → '이' (일반 주격 조사)

일석의 반론은 다음 세 가지다. 첫째, 주격이 지시 대명사 '이'로부터의 발달이라면 (13가, 나)의 밑줄친 '기. 제'는 (14가, 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지시 대명사의 중첩이 되는바, 적어도 결합 당초에 이러한 모순을 범하면서 말의 구성을 시작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둘째, 가령 먼 거리에 있는 산을 가리키며 (15가)를 말했을 경우, 원칭의 지시 대명사인 '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5나)와 같이 오직 근칭의 '이'만을 사용한다는 것 또한 불합리요 모순이다. 그러나 이를 존재사 '있다'의 발달로 보게 되면, (15다)에서와 같이 청자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우선 그 존재를 확인시킨 것이라는 의미해석이 가능하다. 셋째, (16가, 나)에서 보듯이, 존경 주격 조사 '꺼서'의 발달도 이와 평행한다.

문종이 따르지 못하는 어원론이 대체로 그러하듯이, 시제의 '-ㅁ-'을 제외한 나머지 세 형태의 어원론은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전혀 그 당부당을 말하기 어려운 가설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⁸⁾ 이들의 근거에는 '모든 허사는 실사로부터의 발달'이라는 정당화도 부당화도 어려운 내용의 전제와, 어간 '이시-'의 분열이라는 부자연스러운 내용의 가정이 깔려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점만을 논외로 한다면, 그의 논거들은 이전이나 이후의 다른 어느 어원론에서도 기대하기 어려운 깊은 통찰과 투명한 논증법을 담고 있다. 특히 위에서 본 주격 '이'의 어원론이 그러한데, 그가 상정한 (15가, 다)의 의역 관계는 가령 다음(17)과 같은 한정 표현에서의 함의 또는 전제를 둘러싼 러셀(Russell)과 스트론슨(Strawson)의 논쟁을 상기하게 하는 것이다.

(17) 가. 프랑스 왕은 대머리다.

나. 프랑스 왕이 존재하며, 그는 대머리다.

다. 프랑스 왕이 존재한다.

잠시 위 네 가지 어원론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이들이 일석의 문법적 구상에서 가지

8) '-시-' (존경)의 어원론이 현대 국어 기술에서 가지는 의미가 줄고(1975), 임흥빈(1976)에서 해석된 바 있고, 이기문(1991)에서도 간접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바 있다.

는 의미를 되새겨 보기로 하자. 일석은 여러 곳에서 국어가 첨가어에 속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론 실사와 허사의 구분이다. 문장 속의 모든 실사(또는 의의질, 의의 요소)는 허사(또는 형태질, 형태 요소)와 결부됨으로써 다른 실사와 관계를 맺게 된다. 첨가어의 특징은 의의질을 담은 실사와 형태질을 담은 허사가 음운론적으로 뚜렷이 구분된다는 데에 있으나, 그는 이것이 허사를 가지지 않는 국어의 관형사나 부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굴절을 모르는 고립어의 단어들에게까지 일반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았다.

(18) 가. 글월(文)을 구성하는 요소의 단위로서 단어보다 상위 개념이 되는 의미의 한 단락(나는 이것을 어절이라 일컫는다)이 대개 '의의질 + 형태질'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는데... (이희승 1955 : 391)

나. 우리 말에서는 대체로 이 두 요소가 어떠한 음운 형식을 가지고 명료히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어와 같은 고립어에 있어서는... 실질어의 나열만으로 훌륭히 정돈된 문(文)을 이룬다. 그리하여 문법적 기능을 표시하는 형태 요소는 전연 사용되지 않는 듯하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피상적 관찰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요, 형태 요소가 그 각개어 중에 내재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희승 1955 : 201)

다. 그리고 인구어족에 속하는 여러 언어에는 의의 요소와 형태 요소가 사실로 존재하되, 그 두 요소는 전연 분리할 수 없는 정도로 융착되어, 그 중의 하나는 그 상대되는 말 속에 깊이 파고 들어가서 독립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희승 1955 : 203)

따라서 국어의 관형사나 부사는 이제 '형태질을 내재적으로 가진 단일 어형의 단어'로 간주된다. 여기서 일석이 전제한 '실사의 허사화'를 가능케 하는 것은 '실사만의 단어가 문장 속에서 가지는 형태질'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존재사 '있다'의 문법화에 대한 일석의 강한 집착은 국어의 첨가적 성질을 기초로 하여 그가 설정한 '어절'의 단위를 WP모형의 일반적인 단위인 어형과 일치시킬 원리적 근거를 찾는 데에 그 목표가 있었던 것이다.

4. 결 어

이 글의 서두에서도 이미 밝힌 바이지만, 필자에게 처음 주어진 임무는 일석 선생의 문법 연구를 개관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필자는 단지 어절과 존재사라는 두 과제를 통하여 일석의 구상을 되새겨 보는 것으로 이 임무를 대신하여 왔다. 필자가 고른 이 두 과제로서 일석 문법의 핵심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것은 물론 아니나, 이제 필자에게 남겨진 한두 가지의 아쉬움을 더 고백하여 두는 것으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일석의 문법적 구상에 담겨져 있을 또다른 선학들이나 외국 이론의 영향을 거의 다루지 못하였다. 일석은 자신의 학문 역정을 회상할 때마다 '외국의 이론을 받아들여이되 국어의 본질에 맞게 응용할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였다. 그의 업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가 표방한 '국어학 건설'의 가치에 발을 제대로 맞추자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선 그가 거친 '영향과 응용'의 사연에서 배우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이다.

- (19) 나는 늘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합니다. 앞으로도 자꾸 새로운 이론을 도입해서 우리 국어학계에 수용을 하고, 따라서 우리 국어학의 발전을 추진해 나가야 되겠지만, 언어학 이론을 도입해서 적용이라기보다 응용을 해야 한다. 굴절어와 교착어인 우리 국어와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점을 전제로 하고 적당히 응용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나 자신 동양 언어를 중심으로 한 언어학이 구성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욕심도 가져 본 일이 있어요. (이희승·김완진 1976 : 235-6)

일석의 업적이 후학들에 미친 영향까지를 포괄하여 좀더 좋은 개요를 써 보고 싶은 욕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 역시 필자의 역량을 너무나 벗어나는 일이었다. 그가 표방한 '국어학 건설'의 기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수많은 후학들에게 국어 연구의 큰 이정표가 되었던 것이나, 가르침에 직접 접하는 행운을 가졌던 제자들의 경우라면, 그가 베푼 영향은 앞으로 또다른 각도에서의 각별한 평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 (20) 내가 교단에 있을 때 써서 발표한 논문은 영성해서 도무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 입으로는 후진 학생들한테 내 나름의 창의적인 것은 여러번 일러 준 일이 있어요. 그 후에 책이 나오는 것을 보면 나와 같은 의견도 나오지만,아무튼 우리 국어학계, 특히 문법학계에서 그러한 것이 앞으로 학문적으로

조그마한 보탬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할 따름예요. (이희승·김완진 1976 : 229)

참 고 문 헌

- 강복수(1972), 국어문법사연구, 형설출판사.
- 고영근(1985), 국어학연구사, 학연사.
- 김민수(1977), "이희승 '초급 국어 문법' 해설", 역대한국문법대계 1-32, 탑출판사.
- 박양규(1975), "존칭체언의 통사론적 특징", 진단학보 40.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1991), 고등 학교 문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1991), 고등 학교 문법 교사용 지도서,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 안병희(1989), "이희승 선생의 국어학 연구", 현대문학 12월호.
- 이기문(1991), 국어 어휘사 연구, 동아출판사.
- 이병근(1992), "이희승 : 일석 국어학의 성격과 시대적 의의", 주시경학보 9.
- 이승녕(1953), "격의 독립 품사 시비", 국어국문학 4.
- 이정민·배영남(1987), 언어학사전, 한신문화사.
- 이희승(1931=1947), "조선어 '때의 조동사'에 대한 관견", 신흥 4-5, 조선어학논고.
- (1932=1947), "'ㅁ' 받침의 가부를 논함", 조선어문학회보 5호, 조선어학논고.
- (1947), 조선어학논고, 을유문화사.
- (1949), 초급 국어 문법, 박문출판사·(역대한국문법대계 1-32, 탑출판사)
- (1955), 국어학 개설, 민중서관.
- (1956), "존재사 '있다'에 대하여 — 그 형태 요소로의 발전에 대한 고찰", 논문집 (서울대) 3.
- (1975), "나와 국어학", 국어학 3.
- 이희승·김완진(1976), "국어학 반세기"(학술대담), 한국학보 5.
- 임홍빈(1976), "존대·겸양의 통사 절차에 대하여", 문법연구 3.
- 최현배(1930), "조선어의 품사 분류론", 조선어문연구, 연희전문학교 출판부·(역대한국 문법대계 1-17, 탑출판사)
- 최현배(1937), 우리 말본, 연희전문학교 출판부·(역대한국문법대계 1-18, 탑출판사)
- 高山善行(1990), "文節", 日本語學 9-10, 明治書院.
- 小池清治(1990), "主語·對象語", 日本語學 9-10, 明治書院.
- 松村 明(1982), 日本文法大辭典, 明治書院.

Matthews, P. H. (1974), *Morphology : An Introduction to the Theory of Word-struc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Ramstedt, G. J. (1939), *A Korean Grammar*, Helsinki : Soumalais-ugrilaisen Seura.